

# 어린이책 들춰보기

## 동쪽에 집이 있는 아침

김구연 지음

동아사 / A5신 / 274면 / 5000원

어린이들의 사랑의 정서를 동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작품 속에 줄곧 담아왔던 시인이자 동화작가 김구연씨의 최근 작품집.

비스킷으로 다람쥐를 유인, 잡아서 관상용으로 외국에 수출하려는 악덕 상인들로부터 용감히 다람쥐를 보호하는 어린 완이 이야기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고 산다」를 비롯해 「규야와 멍멍이」 「비비새의 꿈」 등 부정한 어른들의 세상에 정의를 맞게 맞서는 어린 혼들의 근심과 기쁨, 꿈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 백두여 천지여

이은방 엮음

삼성미디어 / A5신 / 216면 / 2500원

시조시인인 작가가 우리 겨레의 영산이며 聖蹟地로서 수많은 전설과 민담을 꽃피워온 백두산을 여행하고 와 쓴 기행문.

중국을 통해 광복 44주년을 맞던 지난해 8월15일을 백두산 정상에서 보낸 필자는 "6천만 민족의 소망인 조국통일이 이룩되는 날 백두의 남쪽 영봉에서 다시한번 그 감격스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후기에 적고 있다. 백두산과 천지의 신묘하고 웅장한 사진과 함께 백두산을 소재로 읊은 시조, 백두산에 얽힌 전설 등도 함께 실어 흥미를 더해준다.

## 꿀저반 수재들

이영준 지음

상서각 / A5신 / 196면 / 2500원

남의 방학숙제를 대신해주고 번 돈으로 상수원 오염방지 포스터를 만들어 캠페인에 나서는 '숙제왕' 괴짜들의 신나고 이슬이슬한 여행이야기를 담은 코믹 장편동화.

컴퓨터, 번개, 홈런, 도토리란 별명을 가진 4명의 장난꾸러기들이 잡지사의 '어린이 여행'에 참가, 설악산을 비롯해 동해안 일대와 항구도시 부산을 돌며 산과 강, 각 지역마다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와 지명의 유래, 전설 등을 배우고, 여행중 맛따르던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도 힘을 모아 대처해나간다.

## 소중한 우리들(3권)

이원구 지음

새학습사 / A5 / 각권 140면내외 / 각권 2300원

어린이들을 위한 마땅한 성교육도서가 없는 현실에서 국민학교 교과과정에 맞춰 3권으로 나눠 가정에서 부모들이 손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꾸몄다.

1~2학년용에는 '나와 가족의 모습중 닮은점 찾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나' 등 포괄적인 내용을, 3~4학년용에는 '알을 낳는 개구리' '꽃가루받이' 등 비유적으로 탄생의 의문들을 풀어주고 있으며, 5~6학년용에는 '자기 몸의 변화'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했다.



## 위기 1분전

최준식 글·그림

대교문화 / A5신 / 208면 / 2500원

우주인과 지구 어린이의 우정을 담은 공상과학 소설.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온 주화는 학교생활에 좀처럼 적응을 못하지만 매우 사려깊은 아이다. 부잣집 아이들의 기세에 놀려 벌벌기는 용기없는 친구들... 이런 속에서 주화는 시골국민학교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간다. 그러던 어느날 주화가 살던 아파트 부근에 우주선이 실수로 추락하고, 부상당한 초록빛 우주인 어린이 티노를 주화가 구해준다. 이 사건을 맹렬히 뒤쫓는 UFO연구가. 이들의 줄기찬 추적을 피해 티노를 무사히 제 별로 돌려보내기까지 티노와 주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 나도 사랑할래요

한정옥 글/서진선 그림

성바오로출판사 / 규의 / 16면 / 2800원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비유 그림책. 신약성서 루카 10장 25절~37절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심성에 맞도록 대화체로 각색하여 엮었다.

강도에게 붙잡혀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꼼짝없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이를 모두가 못본 척 피해가버리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쳐버리지 않고 구해준다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이야기.

극도의 이기주의가 어린이들의 세계에까지 만연해 있는 요즘,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며,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준다.

## 별밤 365일

체트 레이모 지음/이재형 옮김

현암사 / A4 / 256면 / 6000원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별자리, 그리고 100억광년도 더 된 천체와 우주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를 365개의 항목으로 꾸민 아마추어 천문학 입문서.

성운·성단사진이 컬러화보로 수록 별밤의 아름다움을 생생히 재현하는 한편 매일매일의 별자리 그림, 밤하늘의 천문현상, 최신의 정보까지를 수필식으로 독창적이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맨눈으로 별을 찾아보는 법, 별과 별자리 지도, 신비롭고 환상적인 성운 등 어린이들에게 별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준다.

## 이습우화집

강정규 엮음/이규경 그림

대원사 / A5신 / 160면 / 2500원

마르지 않는 지혜와 슬기의 샘으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읽히고 있는 이습우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엮은 것.

헛된 공상을 하다가 그만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치녀와 우유통」을 비롯해 게으른 아들들을 재치있게 각성시켜 훌륭한 농사꾼으로 만든 「아버지의 보물」, 각자의 특성을 이용해 교활한 여우를 혼쭐내주는 「개와 수탉」 등 다시 읽어도 새롭게 재미있는 이야기 76편이 읽기에 지루하지 않은 짧은 길이로 씌어졌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반짝이는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다.